

社說

말은바 자리에서 개혁-안정을 추구하자
—경쟁시대를 맞는 경희의 새 아침을 열며—

새해의 새 아침이 활짝 밝아 왔다. 이 아침에 20만 경희인 웃음을 머금은 상경으로 개인의 발전과 대학의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이다. 동시에 새로운 작오와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기도 하다. 경희의 갈증은 희망과 함께 극복되어 갈 수 많은 과정을 안고 출발한다. 때로 위기감마저 느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이룩한 경희의 찬란한 역사를 과소평가 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에 만족하는 자세는 더구나 아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침에서 경희가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발전이나 누지 않느냐 하는 신명의 기도도 서있을는지 누구나 부인할 어려울 것이다. 지난 50년간 쌓아온 경희의 위상이 위협 받고 있다. 물론 경희는 위기를 호기로 전환 시키고 도전에 창조적으로 대응하는 엄청난 자력과 탄력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내외적 도전은 심도 깊고 그 파고는 높다. 이 시점에서 오늘을 직시하고 지난날을 성찰하며 내일의 단계를 본받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문제는 밖에서부터 먼저가 아니고 내적인 것이다. 내적개혁의 의지가 바로 실패 말미의 도전을 성공으로 대항해 왔다는 것을 역사는 가르쳐 왔다.

94년 한국이 맞은 이 시대 최대의 특징을 '경쟁시대'라고 요약 할 수 있었다. 그것은 온 한국의 교육, 경제의 교육에도 반영되는 말이다. 경쟁은 승자와 패자를 분명히 갈라 놓는다. 가혹하기는 하지만 승자는 승자의 프라이머를, 패자는 패자의 굴욕을 감당해야 되고, 그 쪽은 방탕하리만큼 점점 더 커지는 것이다. 이시점을 위기라고 진단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공은 95년의 대학평가를 준비하는 해이다. 이처럼 첫번째의 승부가 여기서부터 시작 될것이다. 거기에는 막대한 재정적 지원, 제도적 개혁과 정비, 그리고 연구중심의 조성과 신장이라는 신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그에 못지않게 절실한 과제는 내적인 우리 모두의 각고의 자기정신과 혁신에 대한 사투리 요구에 어떻게 부응하는가이다. 부분별이긴 하지만 대학인이 매너리즘에 인입에 빠져 있다는 비난을 의연할 수만 있는지도 현실이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지만, 그 보다 더 우리 내면의 양식의 소리가 더 크다.

국내 언론분에서 대학의 문제를 진단하며 충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것들이 다 옳은것도 아니고, 역사성을 무시한 맹목적이고 더 옳은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대학교육 현실이 대개학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고 더하여 우리 정의대학 또한 예외일 수 없다.

대학의 생명은 일차적으로 연구에 있다. 교육과 사회화라는 것을 높이는 핵심적 자태는 연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사에서의 대학 존재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연구에 있다고 지나친 말일 수 없다.

연구를 통하여 교육을 새롭게 하고 주변사회에 활력과 진보를 불어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새해를 맞이하여 연구진흥과 교육개혁을 위한 대학개혁을 연구에 집중하는 94년이 되어야겠다. 그러기 위

해 연구비지원, 지급, 평가 등에 대한 새로운 제도를 뒷받침하고 사과의 진전이 있어야겠다. 대학의 교육의 진보라는 이미지가 없이는 되는 되어 있거니와 연구소의 실패적 지원과 활성화 및 별도의 연구수준의 제도로 진보해 볼 일이다.

동시에 연구에 대한 평가를 엄정히 하고 그 성과를 교수 개인인의 역량에 반영시켜 주어야 한다. 그리고 세계적 학술정보의 기초위에 교수, 연구자, 조교가 전문 연구자를 조직하고 전문영역별과 학제간의 공동연구 공동도 조성해야겠다. 대학이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연구중심의 조성과 신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다.

학생도 이제 피망어린 배우의 자세로 돌아와야 한다. 80년대의 정치사회적으로 온갖 갈등은 학생들이 학업에서 전념할 수 없게 만들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실패를 갖추지 않은 살아남을 수 없다. 세계는 차지하고라도 일본과 중국이 예가 있는 우리의 위상을 방관할 평가하지. 중국은 자원, 일본은 기술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무엇을 갖고 있는가? 있는 것이 인력밖에 없다. 이들에게는 교육의 경쟁력을 갖추게 하고 전문성을 심어주지 않으면 안된다. 그 것을 위해서는 대학교육의 내실화가 그 첫걸음이다. 우선 수업에 엄격히 성실하고 임하고 있으며 그 질의 향상과 개선에 있어 모두 엄격히 헌신하고 있는가 반성하자. 충실한 서비스업과 그에 따른 교육진보와 같이 충실, 열면토록 창신한 이론과 기술개발에 합심하여 노력해야겠다.

한 조지사회는 나름의 조직논리와 이해의 상반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는 소모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문제의 의의를 앞세우는 열린성인의 자세가 크게 요청된다. 민주화가 결코 기계적 동종화가 아니며 비본이 기복된 호호의 수단이 되어서도 안된다. 민주주의는 권리와 동시에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다.

거듭 우리대학의 위상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우리의 소리가 크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성찰해 진단하자. 그리고 소남의 맞으로 풀리기 전에 자각부터 돌아보자.

또한 급진주의의 하나가 학업기회의 확대와 앞선이다. 절호는 교육받은 젊은이들이 곳곳에 있어 일터를 주고 그들에게 일의 기회를 창출케 하자. 공인 사회에는 경희인 취업률 상승의 대전기를 만들고 취업준비생의 환경개선 등은 물론 경희인이 이를 위해 총력을 경합하는 때가 되려 하자. UR의 국제화 압박이 현실로 다가왔다. 이제는 새로운 모습, 실상, 방향이 필요한 때이며, 이러한 새로운 전략과 실천의 원동력을 경희학원에서부터 마련해 나가자.

그러나 도전은 언제나 기뻐왔다. 역사는 뜻을 갖고 노력하는 자의 편이다.

대중, 실천, 발상이 필요하다. 이러한 새로운 전략과 실천의 장을 마련하는데 우리대학이 선도적 역할을 감당하자. 경희는 이 시련을 이기고 또나서 대도약의 나래를 펼칠 것을 다짐하자 1994년을 새로운 마음으로 맞으라.

“우리의 정신적 공간을 지켜라”

사립대 재정지원 축소와 교육개방의 여과

대학이 학문탐구와 교육여건의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과 총합한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학발전 과정은 영세한 자본과 빈약한 교수진으로 출발, 내실은 도시민간체 시정착을 거듭한 끝에 외형만 교육성장을 거듭해온 것이 그간의 사정이다. 따라서 국내 대학의 교육과 연구활동은 과거와 같이 교수의 잠재적 능력이나 주임직 교육만으로는 국제적인 경쟁에서 낙오를 면키 힘들며 대학교육의 위상정립을 위해서는 정책당국은 물론 학교를 구성하는 재단이나 교수 학생들의 근본적인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다. 특히 최근 가시화된 사립대 재정지원 축소 방안과 UR협상에서 제기된 교육개방 문제는 국내 사학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 하는 것이어서 우려를 금할 수 없게 하고 있다.

90년 현재 우리나라의 학부모들이 자녀를 교육시키는 대가로 부담하는 사립대 직접교육비는 12조8천1백38억원으로 이는 우리나라 총교육비 20조8천1백38억원 중 61.5%에 해당되는 막대한 금액이다. 이중 사립대학의 사립대교육비의 비율은 72.3%에 이르고 있어 학부모의 부담분은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자녀교육비 20%와 비교할 때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같은 현실을 감안, 사립대 교육개방의 비중을 높이고 분대 이미 87년에 유

수한 선진국의 교육예산 평균치가 5%를 넘어선데 반해 우리나라의 94년도 GNP 대비 교육재정규모는 교육재정 범위에서, 도 전입금까지 포함하더라도 교육 4%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교육부는 특히 지난 9월 그동안 GNP대비 교육재정을 산정하던 중앙정부 예산만 제산했다가 지방정부에서 부담하는 공교육비도 포함해야 한다는 경제기획원의 태어난 지적을 받아들여 94년부터 이를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이에따라 94년도 교육재정은 교육당국 전입금, 단체소비세 전입금 등 시, 도 전입금 7천1백34억원을 포함해 모두 11조6천83억원으로 GNP의 4%를 유지하게 된 것.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86년 기준 개도국 평균치인 3.90% 수준에 불과하며 체코(4.06%)와 헝가리(6.03%) 같은 동구권 나라들은 물론 싱가포르(4.35%), 아일랜드(4.06)와 같은 개발도상국들도 높게 유지하고 있다.

시한 대안에 정부층의 성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대교원은 지난해 7월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위해 현재 GNP 대비 3.8%에 머물고 있는 교육예산의 비중을 오는 97년까지 5%수준으로 올리야 하며 교육부 예산

관의 예산 전출을 유예한 현재 4가지로 압축되고 있는데 첫째, 자본투자를 통한 신규 설립 또는 경영주 교체행위로 여기에 는 분과로 분리의 형태로 내국인과 공동주자를 통해 진출하는 것을 포함하며, 둘째, 국내 경영직과 계약에 의거 교수요

원 및 교육과정 등 학사조직을 과대해 유지하는 방법, 셋째, 통신통을 통한 원거리 교육, 넷째, 커리큘럼이나 학사운영방식, 교육과정 및 명칭을 사 용하여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요약을 수 있다.

그렇다면 교육시장 개방의 여과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대의해 강구기 두엇보다 절실하게 다지고 있다.

교육분야에 대한 개방은 당 초 92년 UR협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양자 협상과정에서 EC, 호주 등으로부터 전문직업교육, 외국어교육, 대학교육등의 개방을 요구받으며 이어 93년 한, 미간 영업환경개선에의(PEL) 이행을 위한 미국과의 조기개방 요구 및 정부의 신장정책 5개년 예시제에 따라 95년부터 학원부서 부분개방 원칙을 세우면서 비롯되었다.

이에따라 정부는 학원의 경우 전문직업교육(기술, 예체능)은 95년 1월부터, 일반직업교육(임시, 외국어)은 95년 1월부터 개방하고 대학의 경우 UR 자기협상에서 논의, 결정적으로 개방당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어 교육개방이 피할 수 없는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

대학개방에 따른 외국교육기 회와 교육개방 등 학사조직을 과대해 유지하는 방법, 셋째, 통신통을 통한 원거리 교육, 넷째, 커리큘럼이나 학사운영방식, 교육과정 및 명칭을 사 용하여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요약을 수 있다.

그렇다면 교육시장 개방의 여과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대의해 강구기 두엇보다 절실하게 다지고 있다.

교육분야에 대한 개방은 당 초 92년 UR협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양자 협상과정에서 EC, 호주 등으로부터 전문직업교육, 외국어교육, 대학교육등의 개방을 요구받으며 이어 93년 한, 미간 영업환경개선에의(PEL) 이행을 위한 미국과의 조기개방 요구 및 정부의 신장정책 5개년 예시제에 따라 95년부터 학원부서 부분개방 원칙을 세우면서 비롯되었다.

이에따라 정부는 학원의 경우 전문직업교육(기술, 예체능)은 95년 1월부터, 일반직업교육(임시, 외국어)은 95년 1월부터 개방하고 대학의 경우 UR 자기협상에서 논의, 결정적으로 개방당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어 교육개방이 피할 수 없는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

대학개방에 따른 외국교육기 회와 교육개방 등 학사조직을 과대해 유지하는 방법, 셋째, 통신통을 통한 원거리 교육, 넷째, 커리큘럼이나 학사운영방식, 교육과정 및 명칭을 사 용하여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요약을 수 있다.

이 일 행 (한국대학신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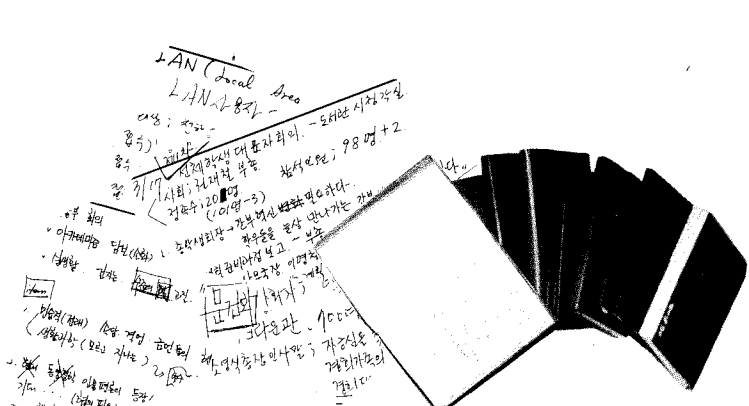
○사립대학들은 등록금 책정때문에 학생들과의 힘의 충돌을 겪는다.

94년도 GNP대비 고작 4%수준에 그쳐
교육 개방되면 사학경쟁력 크게 떨어져



대학의 모습을 보다 정확히 그리기 위해, 대학의 어른들 보다 빠르게 전하기 위해 '대학주보사'는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2권의 취재노트”



대학주보 기자생활 3년째, 취재노트만 벌써 12권. 김기자의 취재노트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만남이 담겨있습니다. 교수들은 물론, 총학생회장, 국회의원이 되신 동문 선배, 베스트셀러 작가인 동문 소설가, 학교 앞 호프집 주인 아버지, 하숙집 아주머니, 세미나 취재 때 만났던 외국인 학자...

김기자는 이런 만남에서 배우게 되는 지식과 진실을 많은 대학인들에게 보다 알리려는 취재기 위해 오늘도 13권을 더 집필하고 있습니다.

대학주보사